



미국 셰일: 신규 투자 확대하기엔 높은 불확실성

3Q25 Dallas Energy Survey

25년 말 국제유가 전망치 \$64

25년 말 국제유가 전망 \$68 → \$64: 미국 텍사스 인근 127개 기업 경영진의 25년말 유가(WTI) 전망 평균치는 \$63.8로 2분기(7월) 대비 약 4달러 하향 조정되었다. 하향 요인은 OPEC+의 본격적인 증산 및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다. 기간별 가격 전망은 6개월 후 \$63, 1년 후 \$64, 2년 후 \$69, 5년 후 \$77로 단기간 내 유가는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원유 생산비용 부담 지속

신규 투자 결정 어려워

비용은 증가하는데, 정책적 지원은 미비: 미국 E&P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데, 관세, 철도, 해징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담이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로 신규 유정 생산단가를 얼마나 낮춰주었느냐는 질문에 1달러 미만이라고 대답한 비중이 57%였다. 그리고 기업 중 73%가 유전 장비 수입에 있어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비용 증가 리스크가 존재한다. 최근 멕시코 카르텔의 원유 절도 이슈, 헛징 비용 증가, OPEC+의 증산까지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져 주요 투자에 대한 결정이 늦춰지는 상황이다.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다수: 셰일 기업 CEO들의 코멘트를 보면, “셰일의 황혼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3년 이상 석유산업은 침체될 것이다”, “산업의 미래는 낙관적이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는 전통/해양 유정, 해외 유정에 대한 탐사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당분간 미국 셰일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애널리스트 코멘트

4분기 미국 셰일 피크아웃으로 인한 공급 감소 전망 유지

국제유가, 점진적 반등 예상: 국제유가 단기 약세 구간이 곧 끝나며, 반등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판단한다. OPEC+의 예상보다 컸던 증산은 공급 과잉을 유발했으나, 중국의 비축유 매입이 해당 효과를 일부 상쇄하며 유가 하락세는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한다. 향후 유가는 1) 미국 셰일의 피크아웃, 2) OPEC+의 쿼터대비 부족한 실증산량(카자흐스탄, 알제리 등), 3) 정제설비 정기보수 종료 및 난방 수요 증가로 점진적 반등을 전망한다.

그림 1. 25년 말 WTI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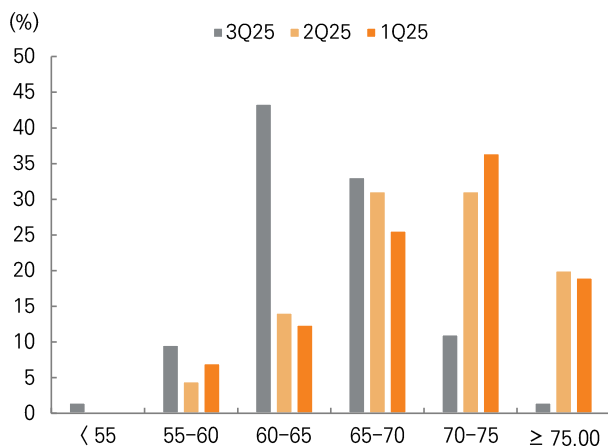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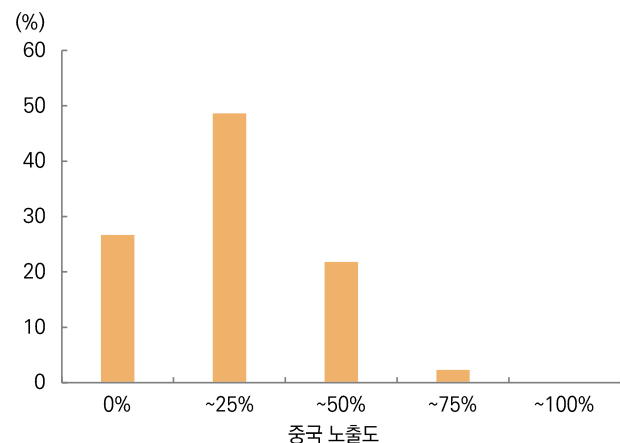


그림 2. 유전 장비 중 직간접적 중국 노출도



자료: Dallas Fed Survey,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Dallas Fed Survey,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